한국 내 필리핀 노동자 대상 초국적 금융교육: 현황과 과제
Designing Transnational Financial Education Programs for Filipino Workers in Korea

국경간 사람의 이동이 보다 활발한 오늘날 이주를 통한 개인의 역량 증대와 사회 발전에 대한 관심은 여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IOM이민정책연구원은 주한 필리핀 대사관과 함께 이주가 개인과 사회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오래된 노동이주 송출국입니다. 필리핀인들이 본격적으로 해외취업을 떠나기 시작한 때는 1970년대이고, 지난 수십 년간 많은 필리핀인들은 해외취업을 통해 가족의 부양을 책임져왔습니다. 해외취업의 긍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많은 필리핀인들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지속적인 해외취업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주이민을 허용하지 않은 아시아 지역에서 귀환과 재통합은 송출국 사회의 중요한 정책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포럼은 필리핀 노동자들이 해외취업을 반복하지 않고, 필리핀 귀환과 재통합을 달성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금융교육'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필리핀 정부와 비정부기구들은 해외취업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해 왔지만, 그간의 금융교육은 이주의 초국적성(transnationality)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교육은 송출국에 남아있는 가족에 대한 교육, 취업국의 여건과 금융시장을 고려한 교육이 없다면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필리핀과 한국에서 필리핀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금융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필리핀 노동자의 수요에 조응하는 금융교육을 위한 한국과 필리핀의 다층적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일시: 2019년 7월 3일, 13:30~16:30

장소: 한-아세안센터 아세안홀 (프레스센터 8층)

주최: IOM이민정책연구원

시 간	발표자/토론자	주 제
13:30~13:50	장주영 IOM이민정책연구원	이주노동자 대상 다자간 금융교육
13:50~14:10	Stella Go De La Salle University	필리핀 내 이주노동자 금융교육 현황과 과제
14:10~14:30	MCM Valderrama 주한 필리핀 대사관	한국 내 이주노동자 금융교육과 귀환자 재통합
14:30~14:50	휴식/다과	
14:50~15:05	충남대학교 소비자학과 김민정 교수	지정토론
15:05~15:20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엄은희 선임연구원	지정토론
15:20~15:35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이기호 차장	지정토론
15:35~15:50	필리핀 커뮤니티 제니 김	지정토론
15:50~16:30	종합토론	